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정경호	학번	2011****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6.1.5. ~ 2016.2.28.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대학은 마닐라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 최고의 대학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넓고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쉬는시간에 거리낌 없이 복도바닥에서 공부를 하거나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대학 투어를 갔을 때 필리핀대학 대학생과 1:1 친구를 맺어 액티비티를 했는데 모두들 공부를 잘하고 친절하고 착했습니다.
수업	우선 필리핀에 도착을 하면 다음 날 분반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테스트 방식은 written test 와 speaking test를 모두 보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그룹이 3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그 그룹으로 그룹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업시간은 하루 총 8시간으로 그룹수업 5시간, 1:1 수업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룹수업에는 티쳐들이 질문을 하면 한명씩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1 수업은 조그마한 방에 두 명이 들어가 수업을 합니다. 티쳐들이 주로 질문을 하며 학생들은 답변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설피고 긴장되지만 티쳐들이 모두 잘 이끌어 주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각 수업마다 가끔씩 숙제가 주어질 것입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저녁 자유시간 때 주로 숙제를 합니다. 티쳐들과 2달동안 수업을 하면 모두 정이 들기 때문에 떠날 때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Activity는 보통 주말에 실시됩니다. 종류로는 다양한데 요트타기, 사파리 체험, 열기구 체험, 해변 체험 등이 있습니다. 비용은 Activity마다 다른데 보통 한 번에 식비포함 2만원~2만5천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준비물로는 썬크림을 꼭 바르시고 양산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

	하면 햇빛이 너무 강해서 피부가 많이 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덥고 습합니다. 한국이 겨울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이 여름일 때는 더 덥다고 합니다. 주말 액티비티를 참여하실 경우 선크림과 양산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야외날씨가 덥다고 해서 반팔만 가져가 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의실은 에어컨을 틀어놓기 때문에 오히려 추워서 감기에 걸리기 쉬울 수 있습니다.
안전	필리핀 어학연수 8주과정을 하신다면 수빅에서 생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수빅은 나라에서 경제특구로써 안전합니다. 다만 시내로 나가게 되실 경우 어린 아이들이 돈을 구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지 마시고 그냥 무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은 그냥 무난한 정도입니다. 시설에 문제가 생겨 팀장님께 보고 드린다면 즉시 해결해 주십니다. 통금시간은 저희의 경우 다음날 수업이 있는 경우 밤 10시이고 수업이 없는 경우 새벽 2시입니다. 모든 수업이 끝난 후 자유시간에 강의실을 사용하여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공부를 마치신 후 반드시 컴퓨터를 종료시키거나 불을 끄고 나오셔야 합니다.
식사	학교식당 ( 0 ) 외부식당 ( ) 기타 ( ) 숙소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제공해 줍니다. 먹으라고 강요는 하지 않지만 웬만하면 모두 드시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식단은 한식으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고 입에 잘 맞았습니다. 시설도 위생적으로 깔끔하고 밥도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십니다. 배식해주는 분들도 모두 친절하십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많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즐기고 왔습니다.
교통	숙소건물 내에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숙소를 나와서 강의실을 가는데 걸어서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숙소에서 시내로 나갈 때는 버스를 이용하는데 한번 타는 값은 330원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버스시간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오는 것을 타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때는 많이 기다립니다. 택시는 한국처럼 미터기를 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종착지를 말해주면 얼마에 해주겠다 합의를 보고 출발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택시기사들이 일단 높게 부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56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350,000	현지 본인 지출

Activity	100,000	현지 본인 지출
교통비	70,000	현지 본인 지출
티쳐 선물	20,000	현지 본인 지출
생활용품	30,000	현지 본인 지출
간식거리	40,000	현지 본인 지출
합계	610,000	현지 본인 지출

## 5. 출국 전 준비사항

날씨가 덥고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썬크림은 필수입니다. 특히 여름일 때는 더 덥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의실은 에어컨을 틀어놓아서 출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긴팔 티셔츠도 몇 개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티쳐들과 이별을 하는 순간이 오면 조그마한 선물 준비를 하는데 적당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 조그마한 한국 선물을 몇 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영어실력 향상이었습니다. 물론 하기 나름이었습니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지, 일과 후 자유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티쳐들과의 수업 분위기는 비교적 편안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될 수 있지만 티쳐들이 분위기를 즐겁게 잘 이끌어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친해지면서 편안한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8주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익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주말 액티비티 중 하나로 요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올핸드 비치에서 점심식사로 고기를 굽기 전 사진입니다. 비치에서 수영을 즐기며 놀았습니다.



말라완 파크입니다. 주변에 바가 하나 있는데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경치를 즐기며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섬을 돌아다니며 경치를 즐기고 사진을 찍으며 놀았습니다.

보트타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2개월간 저희를 위해 배식을 해주시던 '신짜'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출국 당일 모두들 아쉬움 반 설레임 반으로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